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박유민(경상대학교)

세션명	워크숍3.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일시	2018.7.5.(목) 11:00~12:3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4 (9F)	
참석자	사회	김경석(부산대학교)	발제	김경석(부산대학교)
	패널	이동만(KAIST)	전용준(법무법인 유미)	
		조성덕(성균관대학교)	최정도(국립국어원)	
플로어	변규홍(스켈터랩스)			
플로어	약 12명 참여			

제안내용	최상위 도메인에서 한글 및 한자 도메인 허용 문제, 한글과 한자 사이의 이체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요약내용	<p>인터넷 자원への 접근을 위한 총체적 이름 체계인 도메인 이름이 영어(로마자)뿐만 아니라 다국어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가능해지면서 로마자, 한글, 로마자/한글 혼용, 등이 생겨났다. 비록 영어(로마자) 도메인 이름의 사용빈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빈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어는 한글과 한자로 이루어진 언어이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에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의견이 생겨 공식적으로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 이름 사용에 대한 제안서를 넘겼으나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실생활에서 한글/한자 혼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도메인 주소가 허용될 경우, 혼동하기 쉬운 도메인 주소의 난립과 같은 발음의 도메인주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한자 입력에 제약이 많다는 점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TLD와 실생활의 언어문화는 무관하고, 도메인의 한자 입력에 많다는 점도 실생활에서는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연결된 링크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의견도 있다. 크게 보면 도메인 규칙의 틀 상 어려운 점이 많고 사용빈도도 매우 적을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 이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측과 아무리 소수라도 한글/한자 혼용을 이용해 도메인 이름을 만들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이런 소수 의견을 가버이 무시해도 되는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의 대립이고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한자 혼용은 세대 간의 언어 사용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도 논의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p>

논의 세부 내용	<p>1. 김경석,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LGR (Korean - Label Generation Rules) v1.0 (2017.12.10.)은, - 최상위 도메인(TLD, Top-Level Domain)의 생성 규칙 - 한글: 한글 글자마디 11,172 자 - 한자: 4758 자 - 한자 이체자 묶음: 152 개 - 한글-한자 이체자 묶음: 5 개 - 한중 사이의 한자 이체자 묶음 통합: 거의 마쳤음 <p>(*) 참고로, 일본은 한자 이체자 묶음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한중 합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함</p>
	<p>K-LGR에서 사용할 수 있는 TLD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만으로 된 TLD: 보기: .데이터베이스연구원 - 한자만으로 된 TLD: 보기: .阿斯達 (중국, 일본도 있음) - 한글과 한자를 섞은 TLD: 보기: .데이터베이스研究室阿斯達 (찬반 양론이 있음)
	<p>관련 문제로 .kr/.한국 아래 도메인(SLD, Second Level Domain)에 한글, 영수열줄(LDH)은 쓰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kr, abc.한국 : 현재 허용됨 (로마자) - 한글.kr, 한글.한국 : 현재 허용됨 (한글) - 한글abc.kr, 한글abc.한국 : 현재 허용됨 (한글-로마자 혼용) <p>(참고: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漢字.kr, 漢字.한국 : 현재 허용되지 않음 - 한글과漢字.kr, 한글과漢字.한국 : 현재 허용되지 않음

K-LGR에 "漢字" 풀의 TLD 허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 ".한글과漢字" 풀의 TLD는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음

일상 언어생활에서 한글 한자 혼용을 거의 하지 않으니, ".한글과漢字" 풀의 TLD는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음

- TLD와 일상 언어생활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보기: "한글abc.kr", "한글abc.한국"은 이미 허용됨.
- <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로마자를 혼용하지 않음.

"한글과漢字" 허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좀 더 일반화하면
- "abc.kr", "abc.한국", "aabc.kr" 등을 모두 다 없애고 "aabc.한국"만 쓰자는 내용과 유사함

- TLD에서 "한글과漢字"는 일상생활의 한글 한자 혼용과는 무관함

"한글과漢字"는 도메인의 한자 입력에 어려움 있다는 주장 있음

- 로마자와 한글을 혼용할 때도 입력의 불편함이 있음

- 한 가지 불편하면 혼용을 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링크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 청와대 같은 공공 기관이 한자 도메인 또는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만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 사적 영역에서 (개인, 회사) 한자 또는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을 쓰는 것을 "잘못됐다, 그렇게 쓰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함

. 그럴 경우 다수의 횡포가 될 수도 있고 소수 의견 무시할 수도 있음

. 다양성 허용/포용, 평화 공존 가능성도 생각이 필요함

도메인 소유자가 "한글과漢字"를 입력할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손님만 내 TLD로 들어와도 좋다 라고 하였을 때

-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에 대해 드물게 수요가 있을 경우 막지는 말자는 의견을 드림

.kr/.한국 아래: 한글 도메인은 로마자 도메인보다 훨씬 적음

- 한글 도메인 다 없애야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한글도메인이 로마자 도메인의 10% 수준임

한글-한자 이체자 묶음 5 개에 대해 ICANN의 IP (Integration Panel) 요청에 의해서 포함시킴

- 중국과 일본은 K-LGR에서 한자 아닌 한글 레이블 또는 한글-한자 레이블이 신청됐을 때,

. 한자 (한쯔, 간지) 레이블이 block 된다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보임

. 실제 block 될 확률은 아주 낮음

- 한글-한자 이체자 묶음: 중일과 IP 사이의 문제가 낮을 수 있음

K-LGR에서 (슴, 습) [한글 슴과 한자 합 습]을 이체자 묶음으로 묶었을 때,

- K-LGR에 따라 한글 슴이 들어간 레이블 (도메인)을 신청하면,

- 한중일 모두 한글에 대응하는 한자 이체자 합할 합 습 자가 들어간 레이블이 block 된다. (확률이 낮음)

K-LGR에서 (슴, 습) [한글 슴과 한자 합 습], (슴, 습) [한글 슴과 한자 습]을 각각 이체자 묶음으로 묶었을 때,

- K-LGR에 따라 한글 슴 과/또는 한글 습이 들어간 레이블 (도메인)을 신청하면,

- 한중일 모두 한글에 대응하는 한자 이체자 합할 합 습 자 과/또는 이체 습 자가 들어간 레이블이 block 됨

2. 이동만, 도메인 이름이란 무엇인가.

-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 자원への 접근을 위한 총체적 이름 체계임. 이름이기 때문에 1:1 매칭임.

- 어떤 주소에 어떤 이름을 부여하면 그 이름이 바뀔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유일한 이름을 통해서만 특정 주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유일성이 중요함.

- 인터넷 초창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 레이블이 63자로 제한되어있었음.

- 도메인 주소를 계층적 구조, 단계적으로 나누면 유일한 1:1 매칭의 이름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

- 도메인 이름은 전통적으로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을 "연상 가능" (mnemonic)한 문자열로 구성. 그러나 반드시 의미 있는 단어일 필요는 없음.

- 영어 이외의 글자로 도메인의 이름 표기를 허용함.

- 다국어 도메인 "이름" (RFC5894)

- 도메인 이름은 의미 있는 단어일 필요도 없고 해당 언어의 철자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 유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unicode 에 정의된 글자를 기반으로 함.

- 1:1 매칭을 위해 variant set 정의, 세대 간의 해석

3. 조성덕, 한글과 한자의 혼용

- 처음 정한 한자의 글자 수가 2371자임. 그러나 현대 사람들의 한자 사용이 적다는 이유로 글자 수를 줄였다가 2014년 8차 개정 이후에 8142자로 글자 수가 늘어남.
- 한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 공문서에서도 한자 사용을 하지 않지만, 사적으로 한자를 많이 쓴다는 결론이 나옴.
- 실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왜 굳이 한자를 계속 사용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한글과 한자, 한글/한자 혼용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4. 전용준, 한글 - 한자 이체자 형성에 관한 논의

- 이체자는 모양은 다른데 같은 글자임. 이체자를 도메인에 쓰면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옴. 따라서 혼동을 없애기 위해 이체자를 묶는 작업을 함.
- IP(Integration Panel)는 관련 RFC 문서에 근거하여 한글과 한자 사이에 visually identical 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두 이체자(variant)로 묶을 것을 요청함.
- 한자 - 한자 사이의 이체자는 의미(semantic)적인 관점에서 같은 글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한글 - 한자 사이의 이체는 모양(visual)상의 관점에서 같은 글자 여부를 따지는 것임.
- 모양이 같은 문자를 이체자로 형성하라는 IP의 요구는 특히 일본의 문자생활과 크게 반한다고 보임. 일본인들은 가나와 간지 중 가나가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가나와 간지 중에 비슷한 글자가 많음. 그러나 일본인들은 비슷한 글자들을 모두 구별해서 사용함.
- 한자 - 한자 이체자 도메인 논의는 한-중-일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함. 중국이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함. 그러나 한글 - 한자 이체자 도메인 인정은 오로지 한국의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불편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음.
- 먼저 도메인에 등록하면 나중 것은 block 당하는 선착순 원칙이 있어서 문제가 있음.
- 그간의 한중일 협력관계를 존중하고, 한국보다 한자 사용이 많은 일본

과 중국 배려할 수 있고, 한국입장에서도 큰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만약 중국과 일본이 한글/한자 이체자 도메인을 반대한다면 한국도 반대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음.

- 가정적인 예로 중국 측에서 만약 '合同' label(한자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을 신청/등록하려 한 경우, K-LGR에 따라 '습同' label(한글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이 먼저 신청/등록된 경우, 중국측은 계약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合同' label(한자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을 신청할 수 없음(block됨)
- 위 예에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신청된 '습同' label(한글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을 TLD로서 보호해야 할 것인지 의문임. 오히려 중국측의 문자생활에 부합하는 '合同' label(한자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을 사용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함.
- 현실적인 가능성 관점에서, 한국측 사용자가 '습同' label(한글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만약 신청한다면 악의적인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록을 저지할 필요가 있음.
- 만약 한글-한자 이체자를 부정한다면, 위 예에서 중국측이 먼저 '合同' label(한자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을 신청하였음에도 나중에 한국측 사용자가 '습同' label(한글 습과 한자 同의 결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confusing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이는 사후적인 분쟁조정절차, 예를 들어 PDDRP(Post-Deleg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5. 변규홍, 한국어 최상위 도메인 생성 규칙 논의 과정 돌아보기(2018년의 논의는 2017년까지와 어떻게 달랐나

<도메인 주소 생성 규칙에 대한 기존 합의: 혼란 최소화, 단순함 >

- 2012년 이래 아이칸(ICANN) 홈페이지에 제시된 도메인 네임 생성 규칙을 만들 때 쓰면 좋을 원칙으로 혼란 최소화 원칙(Least Astonishment Principle), 단순함 원칙(Simplicity Principle) 등이 있음.
- 도메인 네임이 특정 언어에 대한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지 말 것, McDonald's의 '기호처럼 도메인 네임에서 쓸 수 없는 일상표현도 있다고도 강조함.

<2018년 한자 도메인에 대한 반대 여론 폭증>

- 2012년에 만들어진 한글 도메인은 앞선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 반면,

2018년 현재 한자 도메인 논의는 논란에 휩싸여 있음

- 한자 도메인 추진 반대 국민 청원, 한자 도메인 반대 사이트 등은 물론 한자 도메인 관련 민원인을 공공기관 담당자가 오타쿠라고 비하하여 해당 기관장이 사과하는 등, 기술과 무관한 논란마저 펼쳐지고 있음.

<2018년 한국 제안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9% 찬성, “과장” 비판>

- 2018년 1월, 한국어 톱 레벨 도메인 규칙에 대한 제안서가 아이칸(ICANN)에 제출되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공개 의견 수렴이 시작됨
- 공개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Exaggerate(과장)으로, 제안서가 한국의 한글 한자 혼용 언어사용에 대한 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 영어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으로 배우고 있지만, 한자는 선택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접수되었음
- IP(Integration Panel)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를 하는 ICANN의 스태프는 Significant한 의견들이 접수된 만큼 전체 접수된 의견들을 반영해 제안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 의견 제출처 중 63%가 한글/한자 혼용을 반대하였고, 9%가 찬성하였음

<한국 제안서 문제점: 정책에 대한 무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 外>

- 제안서 본문을 살펴보니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문화가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널리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 2019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교과서 구석에 교과서 본문 중 나왔던 낱말을 한자로 적고 그 뜻풀이를 적는 정책이 추진되다 만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임.
- 한글과 한자가 동시에 표기된 상표가 많다는 주장이 있었음. 실제로는 영어와 한자를 동시에 표기한 상표를 혼동한 것이었음
-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예로 법학 서적을 들었으나,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예시로 혼란 최소화, 단순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음
- 따라서 일각에서는 K-LGR 제안서가 한국에서의 한글 한자 혼용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음.

<과장의 원인 추정: SLD 규칙과의 일관성에 대한 IP의 피드백>

- 추측해보자면 2015년에 K-LGR 제안서 초고에 대해 IP가 남긴 피드백이 이러한 과장이 일어난 원인일 수 있음.
- IP는 “.한국”, “.kr” 하위에서 한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K-LGR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피드백을 하였음.
- 일반 사용자라면 TLD상의 규칙이 SLD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

이므로 규칙 간 일관성을 요구하는 IP의 피드백은 타당함.

- 그러나 2018년 현재도 “.한국”하위에 한자 사용은 불가능함.

<2017년 각종 의견수렴과 2018년 K-LGR 제안서 의견수렴 비교>

- 2017년 KrIGF 때 수렴된 의견들은 한글/한자 혼용에 대한 찬성의견인지 아니면 한자 사용 도메인에 대한 찬성의견인지 구분이 어려움.
- 한글/한자 혼용에 대한 찬성/반대 비율이 2018년 ICANN Public Comment 때와 상반됨.
-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마케팅을 위해 한자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들도 한글/한자 혼용의 필수성을 이야기하는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17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세대에 따라 한자 도메인에 대한 수요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됨.

<소수자 보호로서의 의제설정의 불합리성>

-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 수요자가 2018년 특히 화두인 소수자 의제의 보호대상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소수자(Minority)는 단지 숫자가 적은 사람이 아닌 권력관계상 열위에 있는 약자를 뜻하므로 강자와 약자의 무엇인지 많은 토론이 있음.
- KGP제안서에도 드러나듯, 40만건 발행되는 한자급수 자격증은 식자층의 문자인 한자를 쓸 수 있는 스펙을 보증하는 징표로 보여짐.
- 따라서 한글/한자 혼용 찬성측이 소수자인지 의구심이 듦.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제언>

- 한글 한자 혼용 도메인 주소 허용시 혼동하기 쉽거나 같은 발음의 도메인 주소 난립, 한자 입력 제약 등 많은 문제가 있어, 허용의 당위는 마땅치 않으나 혼란과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들은 많은 상황임.
- 한글 전용론과 국한문 혼용론 사이의 논쟁과 본 한국어 TLD 논쟁의 상관성, 도메인 주소 규칙 제정 주체로서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가 갖는 위상, 2017년까지의 KrIGF와 2018년의 논의가 달라진 까닭, 현재 대중 참여 가능한 KGP 의견 교환 메일링 리스트 (http://list.jinbo.net/klgr_discuss)의 저조한 참여율, 숙의민주주의나 공론조사의 대중화가 도메인 논쟁에 던져줄 화두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함.

질의

(플로어)

-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을 만드는 것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동만)

- 기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도메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사람이 정함
- 도메인 주소는 어떤 자원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유일성을 위해 본인의 언어체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어라는 차원에서 한글과 한자가 모두 있으므로 포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용준)

- 신규 도메인이 나올 때는 반발이 심함 상표권자들도 반대를 한다.
- 왜냐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문자를 허용해준다는 입장에서 다양성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김경석)

- 한글도메인을 쓰는 횟수도 정말 적는데 한자를 혼용한 한글 도메인은 더더욱 쓰는 횟수가 적을 것이다.
-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영향이 거의 없을 텐데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변규홍)

- 논리학에서는 허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 ICANN에서는 하위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 문제나 Inclusion Principle을 제시하며 도메인 이름 규칙의 기본은 모든 것을 불허하고 굳이 허용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 작지만 있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점, 수요도 작고 원칙에도 안 맞는데 왜 허용하려는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인 것

(플로어)

- 작년의 한자 도메인 논의와 올해의 한자 도메인 논의는 달라졌음. 작년의 논의는 한자를 도입하느냐와 이체자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였는데, 올해는 한자와 한글의 혼용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음.

- 세대 간의 언어의 격차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두 세대 간의 공존이 중요하고, 두 세대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음.
- 한번 허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가야한다는 룰은 있지만,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이 이 룰에 대입할만한 문제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음.

(플로어)

- 알파고 시대인데,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을 사용해도 인공지능은 이체자를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변규홍)

- 이체자를 쓴 2개의 도메인이 존재할 때, 도메인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울 것임.

(이동만)

- 인공지능의 핵심은 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도메인을 쓴다는 것을 학습하여 언젠가 구별할 수도 있을 것임.

(변규홍)

- 오히려 과적합(Overfitting)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일 것임.